

이에 대한 복종으로 “조상들처럼 나 또한 당신 집의 길손이며, 식객입니다”(시편 39, 12)라고 한다. 이런 기본입장은 “땅은 하느님의 소유이다”(시편 24, 1), “하느님은 온 땅의 주인이다”(여호 3, 1·3, 13·24, 1; 미가 4, 13; 즈가 4, 14·6, 5; 시편 97, 5·144, 17) 등에서 보는 대로 사람에게 땅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경작권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약속과 땅을 결부시킨 이스라엘의 통상적 사고와 일단 모순되는 듯하나, 우리의 주제에서 보면 지금도 기본적으로 땅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바탕을 제공해준다.

4. 이방인에 대한 관용의 한계

한편 성서에서는 이방인 또는 피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곳도 있다.

① 다윗왕조시대에 침략자로서 군림한 전통이 있다.

② 토라에 대한 배타적 해석이다. 그중에 할례의 규정, 혼혈 금기, 안식일, 법의 절대화, 음식을 위시한 정결법의 확대적용 등은 사실상 국내 외국인이나 디아스포라 유다인을 게르로 묶어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③ 역사적으로 받은 상처에 대한 복수심, 남의 땅에서 박해를 받은 경험을 적극적으로 살려, 국내 외국인에 대한 관용을 배푸는 근거로 삼는 반면, 역으로 그 당시에 당한 수난에 대한 복수심이 외국인 중 오 내지 박해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바빌론 포로수용소에서 당한 일(출애 1, 8~22·5, 1~23; 신명 23, 8~9; 시편 137, 7~8; 아가 4, 21~22; 이사 34, 1~17·63, 1~3; 예제 25, 12~14; 요엘 4, 19

등등)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5. 당면한 과제

지금까지 나의 경험을 거울로 한 여러 가지 피난자의 양상, 주로 구약의 피난자의 현실 그리고 약간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과 동시에 그와 상반되는 장애요소도 보았다. 우선 피난자가 발생하는 큰 요인을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 제국주의적 국가주의, 둘째 독재적 정권교체, 셋째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다. 그리고 그것에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피난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에서 발생한 당면문제를 예수 그리고 신약의 시각에서 원칙적 대답을 찾아보겠다.

이번 공산권의 붕괴로 국가주의나 폭력적 독재체제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쇠퇴가 얼마나 허구적인지가 폭로되었다. 70여 년간 폐쇄하고 경제적 혁명으로부터 인간의 사고, 나아가 인간을 구조적으로 혁명하려고 했으나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이윤추구를 동력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인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 이 시대는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이 너무 거창해 보여 접근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지엽적인 카리타스(Karitas, 박애)적 봉사나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출하여, 과감히 근본문제에 뛰어들 용기를 가질 때이다. 살인무기의 고도발달에 의한 무력의 한계는 노출되어 인간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신(新)사고를 하게 하고, 특히 어쩌면 인류의 본향인 이 지구를 송두리째 죽여버릴 수 있는 생태학적 위기 앞에서 인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넘어서는 지구촌적 공동의식과 더불어 이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